



헤세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제 양상들

- 헤세의 초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Die Aspekte des Todes in Hesses Werken – anhand der frühen Texte

저자 (Authors)	김선형 Kim, Sun-Hyung
출처 (Source)	헤세연구 30 , 2013.12, 5-24 (20 pages) Hesse-Forschung 30 , 2013.12, 5-24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30268
APA Style	김선형 (2013). 헤세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제 양상들. 헤세연구, 30, 5-24.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4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세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제 양상들

- 헤세의 초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

김선형 (경남대)

I. 들어가는 말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의 작품에는 죽음, 자살 등의 테마가 자주 등장한다. 헤세는 15세가 되던 해인 1892년 6월 20일에 자살을 시도하여, 바트 볼 Bad Boll에서 정신요법을 실행하는 목사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Christoph Blumhardt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헤세는 1892년 9월 1일에 뢰름탈에 있는 슈테텐 신경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 “얼마나 죽음을 생각했는지요!”¹⁾라는 글을 적어 보내고 있다. 또한 헤세는 1892년 9월 11일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슈테텐 병원에서의 힘든 생활과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저의 죽음을 바라거나 용납하시게 될 것입니다”²⁾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35년에 헤세의 동생 한스가 자살하였다. 이처럼 헤세는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경험했던 작가이다.

헤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죽음의 모티브를 다루면서 죽음의 대립개념인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 죽음과 삶의 포괄적 전일성을 꾀하고 있다. 즉, 헤세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문제를 고찰하고 삶의 지혜를 획득하면서 정

1) Brief von 01.09.1892 an Johannes und Marie Hesse. In: Ninon Hesse(Hrsg.):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Hermann Hesse in Briefen und Lebenszeugnissen. 1877 ~1895. Frankfurt am Main 1973, S. 250.

2) Brief von 11.09.1892 an Johannes und Marie Hesse. In: Ninon Hesse(Hrsg.): a.a.O., S. 265.

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헤세는 죽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 죽음을 다른 유사한 모티브와 교차시키면서 죽음의 다양한 양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은 작중 인물의 삶의 제 문제들을 살펴보게 하면서, 죽음을 경험한 인물들이 보다 성숙한 삶의 단계에 도달하여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헤세의 초기 작품들 중에서 죽음의 문제가 작품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이나 동인으로 나타나는 『헤르만 라우셔의 유작과 시 Hinterlassene Schriften und Gedichte von Hermann Lauscher』(1901), 『게르트루트 Gertrud』(1910), 『로스할데 Rosshalde』(1914), 『크눌프 그 삶의 세 가지 이야기 Die drei Geschichten aus dem Leben Knulps』(1915)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살, 어린이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 등, 죽음의 제 양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헤르만 라우셔』와 『게르트루트』: 자살

『헤르만 라우셔의 유작과 시』는 <나의 소년 시절 Meine Kindheit>, <11월의 밤. 튀빙엔의 추억 Die Novembernacht. Eine Tübinger Erinnerung>, <아름다운 물루를 위한 꽃다발. 청년 시절의 체험. 예.테.아 호프만의 추억에 헌정함 Ein Kranz für die schöne Lulu. Ein Jugenderlebnis, dem Gedächtnis E.T.A. Hoffmanns gewidmet>, <잠 못 이루는 밤들 Schlaflose Nächte>, <1900년의 일기 Tagebuch 1900>의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세 번째로 출판된 헤세의 작품이다. 그 중 죽음의 모티브는 <11월의 밤. 튀빙엔의 추억>에만 등장한다.

11월의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울한 날씨에 대학생 오토 아버 Otto Aber, 헤르만 라우셔는 베네딕틴 술을 마시며 튀빙엔의 밤거리를 배회한다. 그러다 그들은 친구 엘렌트엘레 Elenderle와 제벨베처 Säbelwetzger가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 ‘뢰벤’에 합류하여, 철학과 예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낭만적인 삶과 시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의 진로와 사랑 등에 대해 논한다. 그 중 엘렌트엘레는 자신이 세 번이나 시험에 낙방하고 정학 처분을 당하여 군대에 입대하려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곧이어 아버지는 자신을 뷔르템베르

크의 개신교 신학교에 응시하게 한 신사가 오늘 저녁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남자가 나타난다. 그 으스스한 남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창문에는 캄마르고 키가 큰 사내가 꿈쩍 않고 서 있었다. 긴 턱과 뾰족한 콧수염, 벗겨진 이마를 지닌 그는 광채가 나는 잿빛 눈으로 술집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³⁾

제벨베처는 그 모집원 Werber의 모습을 “카스파르나 자미엘”과 같다고 말한다. 카스파르 Kaspar와 자미엘 Samiel은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 카를 마리아 폰 베버 Carl Maria von Weber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Der Freischütz』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오페라의 주인공 카스파르는 악마 자미엘에게 영혼을 팔아 백발백중의 마탄(魔彈)을 얻은 인물이다. 모집원의 악마적인 모습은 비오는 튀빙엔의 암머 Ammer 강가에서 엘렌트엘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때 다시 등장한다. 이 때 모집원의 “차가운 눈초리”와 “뻔뻔스러운 눈에서 섬광이 번뜩이는”⁴⁾ 섬뜩한 모습⁵⁾은 독자로 하여금 엘렌트엘레의 죽음이 그와 연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게 한다.

네 명의 친구들이 뢰벤 술집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등장한 모집원을 제벨베처가 쫓아내려 하자, 엘렌트엘레는 오히려 모집원을 자신들과 합석하게 한다. 모집원은 당구를 치자는 라우셔의 권유에 동의하고 곧 이어 그들은 당구장 ‘발피시’로 간다. 당구장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모집원에게 가입을 신청한다. 이에 모집원은 아버지가 입회 여부를 다음 날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하면서, 자신은 한 학기에 한 번씩 튀빙엔에 오며 하루 동안만 머물 것이라 말한다. 모집원은 라우셔가 놀라워할 정도로 “신비에 가까운 실력”⁶⁾을 보여주면서, 독특하고 기이한 특성은 가중된다. 모집원은 라우셔에게 친구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 이에 라우셔가 대답을 중단하고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가자고 말하자, 모집원은 불쾌해 하면서 먼저 나가버린다. 잠시 후 라우셔는 아버와 함께 ‘발피시’를

3) Hinterlassene Schriften und Gedichte von Hermann Lauscher. HS 1. S. 249.

4) Ebd. S. 253.

5) Vgl. Christian Immo Schneider: Das Todesproblem bei Hermann Hesse. Marburg 1973, S. 144f.

6) Ebd. S. 250.

떠나 어두운 골목길을 배회하다 다시 ‘슈바르츠벨더’에 가서 길카주를 마신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던 중, 암머 강가의 다리 “계단 위에 얼굴을 파묻고”⁷⁾ 죽어있는 엘렌트엘레를 발견한다. 그들은 엘렌트엘레의 몸을 일으키면서, 그의 손에 권총 한 자루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을 부르려 한다. 그 때 현장에 그 모집원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등장하여 그들을 노려보다 사라진다. 놀란 그들은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다음 날 아침 라우서가 술에 깨어 자신이 어제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마침 하숙집 여주인이 커피를 가지고 올라와 한 학생이 자살하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단편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작품에는 엘렌트엘레가 자살한 것인지 타살된 것인지, 두 친구가 피범벅이 된 엘렌트엘레를 부축한 뒤 경찰을 불러 사건을 마무리하였는지 그리고 하숙집 여주인의 이야기에 대한 라우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엘렌트엘레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고,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갑작스럽게 등장한 모집원에 대한 섬뜩한 인상만이 언급된다. 모집원이 엘렌트엘레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등장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모집원이 엘렌트엘레가 자살할 때 옆에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살인하도록 충동질 하거나 살인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보여준다. 엘렌트엘레의 손에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의 권총인지 아니면 모집원이나 또 다른 이가 준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 작품은 시험에 낙방하여 괴로워하던 엘렌트엘레가 자살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여부보다는 악마와 죽음의 특성들을 결합한 듯한 모습의 모집원이 친구들 사이에 등장하고 베일에 싸인 듯한 그의 행동거지 등이 엘렌트엘레의 비참한 최후와의 어떤 연관성을 추측하도록 하는 분위기만을 조성한다. 또한 작품은 엘렌트엘레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하숙집 여주인의 말과 함께 급작스럽게 끝이 나고 그와 연관된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낭만적 대학 도시 튀빙엔의 11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나무들은 “늪은 병정 같고”, “네카강의 물소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강가의 “젖빛 슬픔”, “불쌍한 휠덜린”의 “애닯은”⁸⁾ 하프소리 등이 엘렌트엘레의 슬픈 결말과 결합

7) Ebd. S. 252.

하여 극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학교 시험에 낙방하여 좌절하여 자살하는 엘렌트엘레의 모습은 헤세의 또 다른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 Unterm Rad』(1906)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 Hans Giebenrath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헤르만 라우셔』에서의 엘렌트엘레의 죽음(혹은 자살)은 헤세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892년 6월 20일에 시도한 자살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음악가소설 『게르트루트』에서도 존재의 결함과 사랑의 문제를 지닌 두 사람의 자살 사건이 중심을 이룬다. 헤세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지닌 대립적인 두 인물, 작품의 화자이자 “소심하고, 과도하게 양심적인” 작곡가 쿤 Kuhn과 오페라 가수이자 “화려했고, 마적인”⁹⁾ 탕아 무오트 Muoth의 자살 사건을 통해 자살의 성향을 묘사한다.¹⁰⁾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된 쿤은 사랑을 체념하고 사는 인물이다. 그러던 쿤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르트루트가 무오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결심한다. 쿤에게는 “죽음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좋은지 나쁜지 따질 필요 없는 사무처럼 생각됐다.”¹¹⁾ 쿤은 권총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죽기 전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는 죽으려는 결정적 순간에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 후 그는 더욱 작곡에 몰두하여 결국 “위대한 거장”¹²⁾이란 평가를 받게 된다. 작품의 도입부에 작곡가이자 이 작품의 화자인 쿤은 무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람들은 그의 여성 편력이나 연애 사건들에 대해 입방아를 찧었다. 내용이 낱알이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살인이나 자살 사건에 휩쓸려 들기라도 했던 듯, 무언가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¹³⁾

헤세는 작품 『게르트루트』의 결말이 무오트의 자살로 비극적으로 끝나리라

8) Ebd. S. 243.

9) Ludwig Finckh: Gertrud. Neues Wiener Tageblatt vom 7.10.1910. In: Adrian Hsia(Hrsg.): Hermann Hesse im Spiegel der Kritik. München 1975, S. 93.

10)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148.

11) Gertrud. HS 2. S. 372.

12) Ebd. S. 406.

13) Ebd. S. 310.

는 것을 쿤이 무오트에 대해 들은 풍문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쿤은 무오트가 “무시무시한 분위기”의 사람이며 “스산한 분위기”¹⁴⁾를 지닌 마성적인 예술가임을 말한다. 무오트는 오페라 가수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 묘사된 그의 성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변덕스럽고”¹⁵⁾ “어떤 애정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랑도 기뻐하지 않”¹⁶⁾으며, “사랑하는 것을 모조리 부셔뜨리”¹⁷⁾는 “불쌍한 파괴자”¹⁸⁾이며 “희생하지 않는 데 익숙하고 어두운 충동에 휩쓸려 다녔”¹⁹⁾고, “우울로 인해 자학을 일삼는 과민한 성격”²⁰⁾의 인물이다. “어두우면서도 진지”한 성격의 그가 “밝으면서도 쾌활”²¹⁾하고 “섬세한”²²⁾ 게르트루트와 결혼하지만 결국 파경을 맞는다.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던 무오트도 사랑하는 아내 게르트루트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되자, 삶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면서 번민하며 술에서 위로를 찾으며 살아간다. 무오트는 오랜만에 만난 쿤에게 아내 게르트루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쿤과 철학자들의 삶의 지혜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²³⁾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무오트는 “얼굴은 하얗게 일그러져 있었고 셔츠에는 피가 흥건”²⁴⁾한 상태로 발견된다. 무오트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문장으로 암시된다.

그의 죽음은 그의 인생보다 편안했다.²⁵⁾

14) Ebd. S. 310.

15) Ebd. S. 324.

16) Ebd. S. 339.

17) Ebd. S. 373.

18) Ebd. S. 377.

19) Ebd. S. 405.

20) Ebd. S. 390.

21) Ebd. 369. 이신구: 헤세의 음악가 소설 『게르트루트』 속의 음악. 헤세연구 26집 2011, 9 쪽 참조. 이신구의 논문은 게르트루트와 무오트의 대립된 성격을 악기에 비유하고 있다. 게르트루트의 “밝고 맑은” 성격이 바이올린에, “어둡고 진지한” 무오트의 성격이 첼로에 비유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2) Ebd. S. 390.

23) Ebd. S. 431.

24) Ebd. S. 433.

그는 자신에게 가장 최악의 일을 저질러 왔었고, 죽음이 가장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²⁶⁾

헤세는 「1949년 여름의 비망록 Notiz aus dem Sommer 1949」에서 무오트의 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견딜 수 없게 된 삶을 결연히 벗어버리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²⁷⁾

헤세는 자살을 ‘자유를 얻는 통로 Patet exitus’로 보는 스토아학파의 세네카처럼, 무오트의 자살을 능동적 자살로 규정한다. 즉, 헤세는 능동적 자살을 통하여 자유를 얻는 세네카처럼, 무오트의 자살이 “감상적”²⁸⁾이 아니라고 평하는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상적으로 보고, 고통스러운 삶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자살을 이성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축제가 끝나면 떠나듯이 삶을 떠나주어야 한다고 한다.²⁹⁾ 헤세의 작품에서는 무오트와 같은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들도 자신과 주위의 세계, 혹은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지속적인 권태에 빠지거나, 망상으로 인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들의 죽음은 때로는 스토아학파의 자살 이론처럼 정신적인 자유 판단에 의해서 또는 정신적 착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게르트루트』도 헤세의 자서전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헤세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 베르누이 Maris Bernoulli와의 결혼 실패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헤세는 『게르트루트』에서 예술가가 결혼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생각은 『로스할데』에서도 이어진다.³⁰⁾

25) Ebd. S. 433.

26) Ebd. S. 433.

27) zitiert nach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150.

28) Vgl.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150f.

29) 박인성: 자살의 논변, 철학연구 89집 2004, 178쪽 이하 참조.

30) Vgl. George Wallis Field: Hermann Hesse. Kommentar zu sämtlichen Werken. Stuttgart

III. 『로스할데』: 어린이의 죽음

『로스할데』에는 “독특하게 헤르만 헤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티브들이 등장한다.”³¹⁾ 즉 1911년부터 시작된 아내와의 갈등, 1911년부터 1913년의 화가 한스 슈투르첸에게 Hans Sturzenegger와의 인도 여행, 1916년 아들의 뇌막염 발병 등이다. 그리고 헤세는 별장 ‘로스할데’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공 화가 베라구트 Veraguth처럼 1912년에 베른 교외의 화가이자 친구인 알베르티 벨티 Albert Welti의 별장을 임대하여 거주하였다.

화가 베라구트와 그의 아내 아델레는 막내아들 피에르와 함께 별장 ‘로스할데’에서 살고 있다. 베라구트는 별채에 아틀리에를 만들어 작업하면서, 안채에 거주하는 아내와 별거하여 살고 있다. 어린 아들 피에르가 두 부부를 맺어주는 유일한 끈 역할을 한다.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아들 알베르트도 방학을 맞이하여 로스할데에 되돌아오지만 아버지와는 대단히 불편한 사이이다. 어느 날 베라구트의 친구 부르크하르트 Burckhardt가 로스할데를 방문한다. 베라구트 가족과 잠시 함께 했던 부르크하르트는 베라구트에게 사이가 벌어진 부부 문제와 그로 인한 자녀 교육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게 하고 그 해결책으로 인도 여행을 제안한다. 부르크하르트가 떠나고 베라구트는 친구가 제안한 인도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 때 피에르가 뇌막염의 징후를 보인다.

『로스할데』는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에르의 병과 죽음에 대한 묘사는 10장부터 시작한다. 작품은 피에르의 병이 진행되는 상태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묘사하여 뇌막염의 증세를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피에르의 우울증, 무관심등의 심리상태와 피로감, 두통 등의 초기 증세 등이 언급된다. 그 다음으로 피에르의 구토, 두통, 소음, 빛과 냄새 등에 대해 민감한 증세 그리고 발열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이 언급된다. 그리고 17장에서 “더욱 난폭하고 흐느끼는 비명”³²⁾과 “동물적인 깊은 괴로움에 시달리며”³³⁾ 단말마의 고통으로 괴로

1977, S. 82.

31) George Wallis Field: a.a.O., S. 83.

32) Rosshalde. HS 3. S. 136.

33) Rosshalde. HS 3. S. 137.

위하던 피에르가 사망하기까지 아이의 병에 대한 묘사와 사망으로의 진행 과정이 소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³⁴⁾

11장에서 병이 든 피에르가 곧 다음과 같은 꿈의 내용은 부모와 형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가망이 없는 상태를 암시한다.

소년은 꿈속에서 꽃밭을 천천히 거닐었다. [...] 저쪽에서 엄마가 마주 걸어왔다. 그러나 엄마는 그를 보지도 않고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쌀쌀맞은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유령처럼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는 알베르트가 보였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조용하게 똑바로 걸어가면서도 그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술에 걸린 듯 그들은 무표정하게 걸어갔다. [...]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늙고 창백했으며 무관심하게 굳어진 얼굴이었다.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자 갑자기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의미한 슬픔이 덮쳐왔다.³⁵⁾

피에르의 꿈은 사이가 안 좋은 부모와 형 사이에서 느끼는 그의 고독감을 말해준다. 피에르가 발병하자, 베라구트는 아내에게 잠시 서로간의 감정 상태를 잊고, 아들의 건강만을 염려하며 함께 간호한다. 베라구트는 아들의 병을 계기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게 성찰하게 되며, 자신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임을 느낀다. 자신이 작품 창작에 몰입하여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을 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아들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후회를 한다.

아빠는 아틀리에를 찾아가면 언제나 머리만 쓰다듬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데만 쳐다보는 것. 화가 난 눈을 할 때도 있고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빠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을 보면 알 수 있어.³⁶⁾

아, 어린 피에르는 얼마나 자주 자기를 찾아왔던가. 그는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했거나 근심에 싸여 무관심한 모습만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³⁷⁾

34) Vgl.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135.

35) Rosshalde. HS 3. S. 90ff.

36) Ebd. S. 66.

37) Ebd. S. 132.

피에르가 죽자, 그의 죽음은 베라구트에게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관찰하고 삶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베라구트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로스할데』가 출간될 때 헤세는 1914년 3월 16일자로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그 소설은 나에게 많은 것을 창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의 실질적인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나로 하여금 당분간 이별을 고향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불행한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더욱 깊게는 “예술가의 결혼”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술가나 사상가, 혹은 삶을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³⁸⁾

아버지에게 보내는 헤세의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결혼 문제를 암시한다. 그의 편지 내용은 『로스할데』의 마지막에 베라구트가 말하는 현재 상태와 유사하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예술이었다. 지금처럼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그에게는 밖에서 서있는 자들의 위안이 남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를 끌어 당겨 완전히 마셔버릴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보는 것, 관찰하는 것, 남모르는 궁지를 갖고 함께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상하면서 냉담하고 누구에게도 예측되지 않은 정열이 남아 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난 그의 삶의 건지기며 값어치였다. 억누를 수 없는 고독과 표현하고자 하는 냉엄한 욕구, 그리고 옆길로 빠지지 않고 그 별만 따라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³⁹⁾

베라구트는 자신을 ‘밖에서 서있는’ 예술가로 표현하고 있다. 헤세는 예술세계 속에 침잠하여 작품 창조에 몰두하는 예술가가 영위하는 결혼 문제를 표현하면서, 예술가는 현실 생활에 적합하지 않음을 베라구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로스할데』는 “사랑하는 아들의 병과 죽음이 예술가의 결혼의 조락과

38) Brief von 16.03.1914 an Johannes Hesse. In: Hermann Hesse: Gesammelte Briefe. 4 Bde. Frankfurt am Main 1973, Erster Band 1895-1921, S. 242.

39) Rosshalde. HS 3. S. 142.

죽음에 대한 비유⁴⁰⁾로 설명되어,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좌절된 결혼 생활을 다루는 소설로 간주된다.⁴¹⁾

IV. 『크눌프』: 고대인의 죽음의 형상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앞의 세 작품에서 죽음은 작중 인물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나 작품 전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데 비해, 『크눌프 그 삶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는 고대인의 죽음의 형상이 등장하고, 죽음과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주를 이룬다.

『크눌프 그 삶의 세 가지 이야기』는 3 개의 단편 <이른 봄 Vorfrühling>, <크눌프에 대한 회상 Meine Erinnerung an Knulp>과 <종말 Das Ende>로 구성되어 있다. 크눌프는 자유를 누리며, 대지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작은 생명체와 저녁놀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인물이다. <크눌프에 대한 회상>은 방랑자 크눌프의 친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크눌프와 함께 여름 철 어느 날 마을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예배당에 속한 공동묘지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화자와 크눌프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조용해서 참 좋군!”하고 내가 말했다.

“그래. 조금만 더 조용하면 무덤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소리도 들릴텐데.”

“말도 안돼. 땅속에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거야 모르지.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잠잘 때에도 가끔은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자네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왜 그러서는 안되나? 나는 죽으면 일요일에 처녀들이 찾아와 무덤에서 꽃을 꺾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나직히 노래를 불러주겠네.”

“그래, 무슨 노래를 부르겠나?”

“무슨 노래라? 아무 노래나 괜찮아.”

40)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314f.

41) Gisela Pohlmann: Das Problem der Wirklichkeit bei Hermann Hesse. Münster 1951, S. 64.

그는 땅바닥에 길게 누우며 눈을 감더니 곧 어린애 같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 일찍 죽으니,
젊은 아가씨들이여,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다오.
이별의 노래를.
나 다시 태어날 때는,
나 다시 태어날 때는,
아름다운 소년이 되리라.⁴²⁾

크눌프의 노래 가사에서처럼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소년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것은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의 『고대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형상화하였는가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1769)속에 설명되는 죽음의 형상이다. 이 저서 속에서, 고대 예술가들은 죽음을 두려운 모습의 해골 형상으로 표현하였다는 클로츠 Ch. A. Klotz(1738~1771)의 설명에 대해 레싱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레싱은 호메로스에 의거해 죽음이 잠의 쌍둥이 형제이고, 엘리스에 있는 주노의 신전에 있는 삼나무로 된 관에서 소년의 모습을 한 잠과 죽음이 밤의 품속에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레싱은 죽음을 두려운 모습으로 보았던 중세와 바로크 시대 사람들의 죽음의 이해를 비판한다. 레싱은 죽음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이 진실한 종교의 의미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죽음을 “죄악의 결과”로 보면 죽음의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이고 삶조차 형벌로 볼 수 있음을 말한다.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보는 레싱의 관점은 현세보다는 피안의 세계를 강조하는 것이다.⁴⁴⁾ 헤세는 크눌프의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레싱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평온한 잠과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파악한다.

계속해서 크눌프가 묘 주위에 핀 목서초에 관심을 가지자, 화자는 이 식물

42) Knulp. HS 3. S. 177.

43) Gotthold Ephraim Lessing: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Stuttgart 1984, S. 11.

44) Ebd. S. 64f. 최문규: 한계, 지양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 죽음의 문화적 형상화와 그 의의, 『미론』 괴테연구 20집 2007, 100쪽 참조.

이 너무 빨리 시들어 버린다고 한다. 크눌프와 화자는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한다. 크눌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기쁘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관찰하고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자네도 알겠지만 오늘날이 아니지 않는가하네. 반대로 일시적이고 유지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면 기쁨뿐만이 아니라 연민도 함께 느낀다는 것이지.⁴⁵⁾

크눌프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을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불꽃놀이와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준다고 말한다. 영원할 수 없기에 느낄 수 있는 무상함이라는 감정은 기쁨과 불안의 양면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자가 오래 지속되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인간 관계를 말하자, 크눌프는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어 죽음만이 끝을 내리라 확신”⁴⁶⁾하며 시작하였으나, 그러한 사랑도 유한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이 끝났음에도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화자에게 말한다. 화자는 크눌프와의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고독한 인간 존재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무상함을 크눌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사람이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맺어도 항상 심연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만이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생겨나는 가교로써만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⁴⁷⁾

사랑은 일시적인 가교 역할을 할 뿐이며, 영원한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유한한 것일 수 있고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울수록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화자는 깨닫게 되었음을 말한다. 계속해서 크눌프는 인간 존재의 고독을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시 이야기한다.

결국엔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45) Ebd. S. 178f.

46) Ebd. S. 179.

47) Ebd. S. 179f.

네. 누가 죽어도 마찬가지일세. 아마 하루나 한 달, 일 년쯤은 울고 불며 죽은 이를 생각하고 슬퍼하겠지만 결국 죽은 사람은 그대로일세. 죽은 사람은 관 속에서, 고향을 떠난 이름 없는 일꾼으로 누워있게 되는 것일세.⁴⁸⁾

크눌프는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자들은 슬퍼하지만, 결국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죽음을 변경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한다. 또한 살아 있는 동안 “선하거나 친절하게” 살아도,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해도”⁴⁹⁾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울하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피력한다.⁵⁰⁾ 그러나 크눌프는 살아 있는 동안 “선행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양심의 편안함을 갖기 때문에 선은 역시 옳은 것임에 틀림이 없네.”⁵¹⁾라고 말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무상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삶을 영위하면서 지켜야할 도덕적 근거를 헤세는 크눌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하는 것이다.

<종말>에서 40대 초반이 된 방랑자 크눌프는 폐병이 든 상태에서 젊은 시절 친구인 의사 마홀트 Machold를 만난다. 마홀트는 크눌프의 병을 치료하려 하지만 그는 친구의 병원을 몰래 빠져 나온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크눌프가 추운 겨울에 방랑을 계속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묘사된다. 그는 죽기 전 신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그 때는 그랬었습니다.” 크눌프는 계속 고집스럽게 말했다. “당시 열네 살 때, 프란치스카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망가졌고 엉망이 되어,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 아, 잘못이라면, 열네 살 때 당신이 저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나의 삶은 잘 익은 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⁵²⁾

크눌프는 죽기 전, 자신이 이제까지 영위했던 삶의 방식에 대해 후회한다.

48) Knulp. HS 3. S. 180.

49) Ebd. S. 180.

50)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281.

51) Ebd. S. 181.

52) Ebd. S. 214f.

그는 자신이 떠돌이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삶을 영위하였던 것이, 자신이 미성숙하던 시절 연인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것이라 말한다. 이에 신은 “여전히 웃기만 한다.”⁵³⁾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신은 크눌프의 회한을 꾸짖으며 크눌프의 청년시절 즐거웠던 일들을 환기시킨다. 이에 크눌프도 그 시절이 아름다웠고 행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회한을 다시 말한다. 신이 크눌프에게 헨리테와 리자베트를 언급하자, 그는 죽은 리자베트가 아름답고 슬픈 눈으로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한다. 이에 신은 크눌프로 하여금 “그 여자는 나쁜 것보다는 상냥함과 유쾌한 일을 그대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⁵⁴⁾는 사실과 그녀가 크눌프를 원망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고 위로한다. 신은 크눌프의 삶이 떠돌이 방랑자이었던 것이 신의 의도였으며 크눌프가 삶의 마지막까지 성실하였음을 말한다. 신은 “나의 이름으로 그대는 방황하였으며 한 군데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느니라.”⁵⁵⁾ 라고 말한다. 크눌프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어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을 영위하면서 젊음을 낭비하였다. 신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지니고 꿈을 꾸는 크눌프의 삶이 비록 어리석고 현실 속에서 유익하지 않을 지라도, 그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헤세는 슈트트가르트의 한 여성 독자에게 1935년 2월 23일에 보내는 편지에서 크눌프는 “유익하지 않으나,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며, 많은 유익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준다.”⁵⁶⁾고 적고 있다. 크눌프도 생의 마지막에 신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의 “빛나는 눈은 미소를 지었다.”⁵⁷⁾ 마침내 크눌프는 신의 축복을 받으며 신과 화해를 하고 난 뒤 눈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갖게 되는 회한과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신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성찰하게 된다.

53) Ebd. S. 215.

54) Knulp. HS 3. S. 216.

55) Ebd. S. 217.

56) Vgl. Martin Pfeifer: Erläuterung zu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Unterm Rad. Knulp. Hollfeld/Ofir. 1978, S. 81.

57) Ebd. S. 217.

V.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헤세의 초기 작품 『헤르만 라우셔의 유작과 시』, 『게르트루트』, 『로스할데』, 『크눌프 그 삶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 죽음은 ‘자살’, ‘어린이의 죽음’의 모티브와 ‘고대인의 죽음의 형상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묘사되면서, 주인공의 성장의 동인 역할을 한다.

『헤르만 라우셔의 유작과 시』 속 튀빙엔의 한 대학생 엘렌트엘레는 헤세의 다른 작품 『수레바퀴 밑에서』의 기벤라트처럼 시험과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인물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11월의 우울한 밤에 엘렌트엘레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암머 강가 다리 위의 계단에서 친구들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다. 친구들은 그의 시신을 발견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비밀스럽고 악마적 외양의 인물인 모집원이 등장하자 놀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도망친다. 다음날 아침 라우셔는 어젯밤의 일이 꿈으로 여겨진다. 엘렌트엘레의 죽음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죽음의 원인조차 설명되지 않는다. 11월의 우울한 날에 물소리도 차가운 암머강이 흐르고 낭만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대학도시 튀빙엔에서 악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집원의 모습과 다음 날 아침 엘렌트엘레가 “자살”했다고 단정 지어 소식을 전하는 하숙집 여주인의 말은 작품의 극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게르트루트』에서 쿤과 무오트는 사랑의 문제로 인해 번민하게 되자 자살을 결심한다. 헤세는 『게르트루트』 속에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는 스토아학파의 자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게르트루트』도 헤세의 자서전적 작품으로, 헤세는 예술가들의 실패한 결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술가는 결혼 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게르트루트』에서 자살은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의 비상구 역할을 담당한다.

『로스할데』에서 어린이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의 책임과 변화의 문제”와 연관된다.⁵⁸⁾ 화가 베라구트는 막내아들 피에르의 병과 죽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부 관계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로스할데』에서 헤세의 주인공은 죽음이라는 문

58) Christian Immo Schneider: a.a.O., S. 315.

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삶을 성찰할 기회를 얻고 그 깊이를 얻게 된다. 동시에 『게르트루트』와 마찬가지로 『로스탈데』에서도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크눌프 그 삶의 세 가지 이야기』 속 크눌프는 죽음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크눌프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톨스토이와 그 외 많은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이다. 그는 죽음을 레싱이 자신의 저서 『고대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형상화하였는가』에서 표현한 것처럼 죽음을 평온한 잠으로,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크눌프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의 품에 안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헤세는 죽음을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모티브로 표현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의 죽음의 형상을 제시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최후의 모습 등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죽음은 헤세에게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헤세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즉 헤세는 죽음을 삶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삶의 “위대하고, 영원한 형태들 중의 하나”⁵⁹⁾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일차 문헌

Hesse, Hermann: Sämtliche Werke. 20 Bde. Frankfurt a. Main 2001.(Abkürzung: HS)

Hesse, Hermann: Gesammelte Briefe. 4 Bde. Frankfurt am Main 1973.

Hesse, Ninon(Hrsg.):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Hermann Hesse in Briefen und Lebenszeugnissen. 1877-1895. Frankfurt am Main 1973.

59) Rüdiger Hans: Über das Wesen des Todes: Eine tiefenphänomenologische Betrachtung konkret dargestellt an dichterischen Werk Herman Hesses. Würzburg 1998, S. 223.

이차 문헌

박인성: 자살의 논변. 철학연구 89집 2004.

이신구: 헤세의 음악가 소설 『게르투르트』 속의 음악. 헤세연구 26집 2011.

최문규: 한계, 지양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 죽음의 문화적 형상화와 그 의미론. 괴테연구 20집 2007.

Field, George Wallis: Hermann Hesse. Kommentar zu sämtlichen Werken. Stuttgart 1977.

Hans, Rüdiger: Über das Wesen des Todes: Eine tiefenphänomenologische Betrachtung konkret dargestellt an dichterischen Werk Herman Hesses. Würzburg 1998.

Hsia, Adrian(Hrsg.): Hermann Hesse im Spiegel der Kritik. München 1975.

Lessing, Gotthold Ephraim: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Stuttgart 1984.

Pfeifer, Martin: Erläuterung zu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Unterm Rad. Knulp. Hollfeld/Oftr. 1978.

Pohlmann, Gisela: Das Problem der Wirklichkeit bei Hermann Hesse. Münster 1951.

Schneider, Christian Immo: Das Todesproblem bei Hermann Hesse. Marburg 1973.

Zusammenfassung

Die Aspekte des Todes in Hesses Werken

- anhand der frühen Texte

Kim, Sun-Hyung (Kyungnam Uni)

In den *Hinterlassenen Schriften und Gedichten von Hermann Lauscher* ist der Tübinger Student, Elenderle, ein Mann, der wie Giebenrath in Hesses Werk, *Untem Rad* Angst vor dem Examen und dem Leben hat. Nachdem Elenderle in einer stürmischen und melancholischen Novembernacht mit den Freunden zusammen getrunken hat, wird er an den Stufen der Brücke über die Ammer tot aufgefunden. Obwohl die Freunde, Lauscher und Aber, die Leiche von Elenderle sehen, melden sie den Fund der Leiche nicht der Polizei, da sie durch das plötzlichen Erscheinen des geheimnisvollen und teuflischen Werber überrascht werden und fliehen. Am nächsten Morgen hat Elenderle das Gefühl, dass der gestrige Vorfall nur ein Traum war. Der Tod von Elenderle ist plötzlich eingetreten und es ist nicht geklärt, ob sein Tod nun Freitod oder ein Mord war. In der Stadt Tübingen, wo die kalte Ammer in der trüben Nacht fließt und man das Romantische und die Schwermut zugleich fühlen kann, machen die teuflische Erscheinung und das Benehmen von Werber, vergleichbar mit Kaspar und Samiel im *Freischütz* von Carl Maria von Weber, und die Nachricht der Vermieterin, dass Elenderle gestern Selbstmord begangen hat, die Atmosphäre des Werkes besonders dramatisch.

In *Gertrud* haben der Komponist und Geigenspieler Kuhn und der Opernsänger Muoth aus Liebeskummer beschlossen, Selbstmord zu begehen. Hesse entwickelt in *Gertrud* eine Theorie vom Tod nach stoischen Schule, die dem Selbstmord eher positiv gegenübersteht. Er deutet dort auch an, dass in seinem biographischen Roman *Gertrud* die Ehe für den Künstler nicht angemessen sei. Gleichzeitig ist der Tod für *Gertrud*, der letzte Ausweg, um einer schwierigen Lage zu entkommen.

In *Rosshalde* hängt der Kindestod mit der "Verantwortung der Zurückgebliebenen und dem Problem der Veränderung" zusammen. Der Maler Vegaruth reflektiert dort, nach der bitteren Erfahrung der Krankheit und des Todes seines jüngsten Sohnes, über das Problem seiner eigenen Ehe und sein künftiges Leben. Ausgelöst durch dieses Nachdenken über das Problem des Todes erhält der Held noch einmal die Gelegenheit, sein Leben zu reflektieren und eine bis dahin unerreichte Tiefe des Denkens zu erreichen.

In *den Geschichten aus dem Leben Knulps* sinnt der Held Knulp nüchtern über den Tod und nimmt diesen positiv an. Obwohl Knulp keine Ausbildung nicht genossen hat, scheint er literarisch sehr gebildet. Der Tod erscheint ihm als eine Art von Schlaf und er stellt sich vor, dass der Mensch nach dem Tod als schöner Knabe wiedergeboren wird, so wie es Lessing in seinem Werk *Wie die Alten den Tod gebildet* schilderte. Knulp führt zuletzt in der Stunde seines Todes ein Gespräch mit Gott, in dem er auf sein eigenes Leben zurückgeblickt und dadurch seine Furcht vor dem Todes überwindet: er findet sich am End in den Armen Gottes.

【주제어】 죽음, 자살, 라우셔, 게르트루트, 로스할데, 크눌프

【Schlüsselwort】 Tod, Selbstmord, Lauscher, Gertrud, Rosshalde, Knulp

【필자 E-Mail】 sunhyung@kyungnam.ac.kr

논문 투고일: 2013. 10. 4. 논문 심사일: 2013. 11. 27. 게재 확정일: 2013. 12. 2.